

남남 및 삼각협력의 성공 사례와 시사점

- UNDP 남남 및 삼각협력 효율성 증대를 위한
워크숍(2008. 12. 18) 개최결과'를 중심으로 -

김 태 은 / KOICA 사업평가팀 대리

I. UNDP 워크숍 개최 배경 및 개요

1. 개최 배경

최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개발원조의 한 방법(modality)으로서 개도국간 기술을 공유하고 그 잠재적 개발 재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남남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2003.12.23일 UN은 매년 12.19일을 UN 남남협력의 날(UN Day for South-South Cooperation)로 천명하였으며¹⁾, 남남협력은 개도국 뿐만 아니라 선진 경제권을 아우르는 국제사회의 공통 관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남남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협의는 개념적이고 정치적 측면의 남남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남남협력이 어떠한 활동으로 이행되고 있고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요소들은 무엇인지는 간과되었던 측면이 있다.

이에 UNDP는 UN 남남협력의 날 5주년 계기로 뉴욕 UN 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글로벌 남남개발 엑스포(GSSD

1) 12.19일은 1978년 UN이 개도국간 기술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에노스아이에스 행동계획(BAPA)'을 결의한 날이기도함.

Expo²⁾” 기간 중인 2008.12.16일 ‘남남 및 삼각협력 효율성 증대를 위한 워크숍³⁾’을 진행함으로써, 남남협력 주체인 개도국들과 이를 지원하는 삼각협력 추진 공여국들 각각의 관점에서 남남/삼각협력의 성공요소를 성과사례(Good Practice) 중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동 워크숍에서 논의된 남남/삼각협력의 모습을 토대로 그 시사점 및 향후 성공적 삼각협력 추진을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남남/삼각협력 효율성 증대를 위한 워크숍

일본, UNDP, BMZ, OECD, 세계은행 등 전통공여국(기관)과 태국, 중국, 멕시코 등 신흥공여국, 수원국, 민간부문 등 다양한 개발 주체들의 참여하에 진행된 동 워크숍은 개도국의 남남/삼각협력 구체 성공 사례를 관찰한 후 남남/삼각협력에 있어 공여국의 경험과 역할을 조망하였으며, 논의시 사용된 주요 용어의 개념 범위를 참고하여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he North : OECD/DAC 회원국, UN 기구, 세계은행 등 전통공여국
- the South : 개도국 전반
-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 : SSC) : 개도국간 협력
- 주축국(Pivotal country) : 남남협력에서 주로 ‘provider’ 역할을 하는 개도국
-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
 - 주로 전통공여국 - 신흥공여국 또는 선진 개도국
 - 개도국간 협력이며,
 - 삼각협력 내에는 남남협력 형태가 포함되어 있음

1. 개발도상국의 남남/삼각협력 성과 사례

가) 사례 1 : 아르헨티나의 페루 동물건강증진사업

동 사업은 일본-아르헨티나-페루의 삼각협력사업으로, 아르헨티나가 주축국이 되어 페루에 동물질병관리 기술

2) Global South-South Development Expo (GSSD Expo): 2008.12.16-19일 진행된 동 엑스포는 개발을 위한 민간파트너십(PPP), 저탄소위험경감과 기후변화 대응, 빈곤감소, 남남/삼각협력효율성증대, 개발에서 미디어의 역할 등 6개 주제에 대한 패널 발표 및 토론을 진행

3) Increasing Effectiveness of South-South Cooperation for Development: A Workshop for Practitioners of South-South and Triangular Cooperation

이전을 추진한 사업이다. 아르헨티나 외교부 국제협력국 Ms. Julia LEVI 국장과 페루 Mr. Roberto A. Acosta는 각각 지원경위와 사업성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사업개요 - 지원경위 및 사업 성과

- 사업기간/규모 : 2003-2007 / 50만 달러(일본 70%, 아르헨티나 30%)
- 사업내용: 전문가파견, 연수, 연구센터현대화 등을 통한 가축질병관리 역량 강화
- 주요 추진 경위
 - 페루 정부 및 JICA 페루사무소, 아르헨티나 정부와 JICA 아르헨티나 사무소에 동 사업 요청
 - 일본 및 아르헨티나, 일·아르헨티나 파트너십 프로그램 일환으로 동 사업 추진
 - *배경에는 일본-아르헨티나간 오랜 양자간 협력관계 바탕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다년간 양국 공동연구
 - 사업 목적, 내용, 추진 방식 및 과정 등에 대한 협력국간 사전 협의 및 합의
 - 일본, 남남협력국에 프로젝트관리(PCM: Project Cycle Management) 및 성과관리 기법 전수
 - 아르헨티나, 페루에 기술전수 등 사업 실시
- 사업성과
 - 연구센터 연구원 훈련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파견 및 연수 등 기술전수, 시설 현대화
 - '03-'08간 센터 예산은 2.5배 증가한 반면, 연구실적은 18배, 센터 소득은 7배 이상 증가
 - 장기적으로 가축사망 감소를 통한 페루 농업생산성 강화 및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

• 성공요인

- 동 사업은 주축국-수원국에 적합한 협력사업분야 선정, 공동의 사업형성, 선진화된 사업관리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페루의 가축질병관리 역량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 ① 주축국(아르헨티나) 비교우위분야와 수원국(페루)의 수요간 조화
 - 페루는 높은 가축사망율로 인해 농업생산성 및 식량안보 상황 저하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아르헨티나는 일본과의 장기적 양자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을 토착화하고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한 상황임
- ② 양국 축산환경 등 자연환경의 유사성으로 인한 기술전수 환경의 적합성
 - 아르헨티나와 페루는 지리적 근접성, 환경적 유사성 등으로 인력교환이 수월하고 전수 기술의 적용가능성도 높았음
- ③ 협력국간 공동 사업형성을 통한 사업이 제도 및 주인의식 제고
 - 공동 사업형성 및 추진을 통해 사업목적, 내용, 단계 및 추진방법, 구체 성과(outcome) 등에 대해 합의하였음
- ④ 전문사업관리(PCM) 및 성과관리 기법 전수

- 일본은 개발사업관리기법(PCM)을 양국에 전수, 개도국의 개발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성과중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였음

⑤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 디자인

- 최소 3년 이상의 사업기간으로 단계적 센터 역량강화, 전문가 자문 제공을 통한 지속적 기술전수를 실시하였으며, 센터에는 가급적 젊은 연구진을 투입하여 기술 흡수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나) 사례 2 : 케냐의 아프리카 수학과학교육 역량강화사업

(The case of SMASSE of Kenya and SMASE-WECSA)

동 사업은 일본-아시아국가-케냐의 삼각협력 후 수혜국이던 케냐가 주축국이 되어 일본-케냐-아프리카 기타 국가로 삼각협력사업이 확대된 사례이다. 케냐 교육과학기술부 상임이사 Mr. Karega Mutahi 교수는 동 사업 개요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8-진행중
- 사업내용 : 현직교육훈련프로그램 제공 및 제도화, 현직교육훈련센터 수립 등을 통해 수학과하 커리큘럼 제공의 질적 제고 도모
- 주요 추진 경위
 - 케냐정부, 개발과제 및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한 면밀한 수요분석
 - 1998, 일본-케냐 양자간 협력 실시 : 중등 수학 · 과학교육 강화 시범사업
 - JICA 감독하에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에서 케냐 훈련교사 양성 실시(삼각협력)
 - 케냐-필리핀(01), 케냐-말레이시아(05)간 남남협력협정 체결
 - '03-'08간 케냐 전국(16개 지구 전국) 및 아프리카 전역(약 27개국)으로 사업 확대
 - 교육프로그램을 기이수한 케냐 교사, 아프리카 타국 교사 대상 교육실시 및 훈련교사 양성
 - JICA의 조정하에 말레이시아, 필리핀에서 제3국연수 실시
 - 나이로비에 수학과학교육 역량배양을 위한 국가 · 지역단위 센터 설립(CEMASTEА)
- 사업성과 : 케냐를 중심으로 수혜국이 사하라이남아프리카 27개국으로 확대, '08년 현재까지 약 850명 훈련교사 양성

• 성공요인

- 동 사업은 수요중심적 접근, 현지화된 기술 전수를 통한 효과적 기술이전, 우수사업 확대를 통한 수혜국 확대 및 주축국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가능케한 사업으로 평가되며, 동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성공

요인으로 관찰되어진다.

① 남남협력의 연계적 확대를 통한 보다 효율적 기술이전

- 당초 삼각협력 수혜국이던 케냐가 주축국이 됨으로써, 수혜국일 당시 기술흡수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 경험을 개선, 보다 효과적인 기술이전 실시

② 비용효과적 사업 추진 및 타수원국으로 성공사례 확대 적용

- 수원국은 유사한 개발환경 및 수요를 가진 케냐의 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현지화된 기술을 전수받게 됨으로써 효율적 비용으로 신속한 사업 확대 적용이 가능하였음

③ 수원국정부의 개발수요 분석 및 사전조사 강화를 통한 문제점 파악

- 케냐 정부가 자국 개발 과제(교육)에 대한 상황분석을 실시, 수요 적합 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수원국 정부 당국의 리더십 및 주인의식 제고

④ 지속가능성

- 케냐는 전수 받은 기술을 주축국으로써 주변국에 전파,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함은 물론, 개발역량 및 사업관리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 공여국의 남남/삼각협력 추진 사례 및 역할

가) 일본(JICA)의 관점 및 사례

1)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일본의 관점

1975년부터 남남협력을 지원해 온 일본은 현재 남남/삼각협력의 신주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은 ①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의 결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개발경험에 대한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② 개도국에 적용가능한 경험과 기술은 개도국에 보유하고 있고, ③ 개도국을 통한 타개도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JICA의 기술지원 가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는 이해 하에 남남/삼각협력을 추진 중이었다.

즉, 남남/삼각협력을 통해 JICA 협력사업의 성과(output) 확산은 물론, JICA와 파트너국가와의 삼각협력을 통한 보다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JICA가 한 국가에 전수한 기술은 이미 현지화되어 있으므로, 경제사회문화적 유사성을 바탕으로한 타지역으로의 기술확산을 추진할 수 있으며, 기술확산 과정에서는 JICA가 주축국(기술제공국)이 된 기존 수혜국에 대해 기술적 보완(backstop) 및 사업 조정 지원을 함으로써 주축국 및 새로운 수혜국의 더 나은 역량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2) 일본의 접근 방법과 구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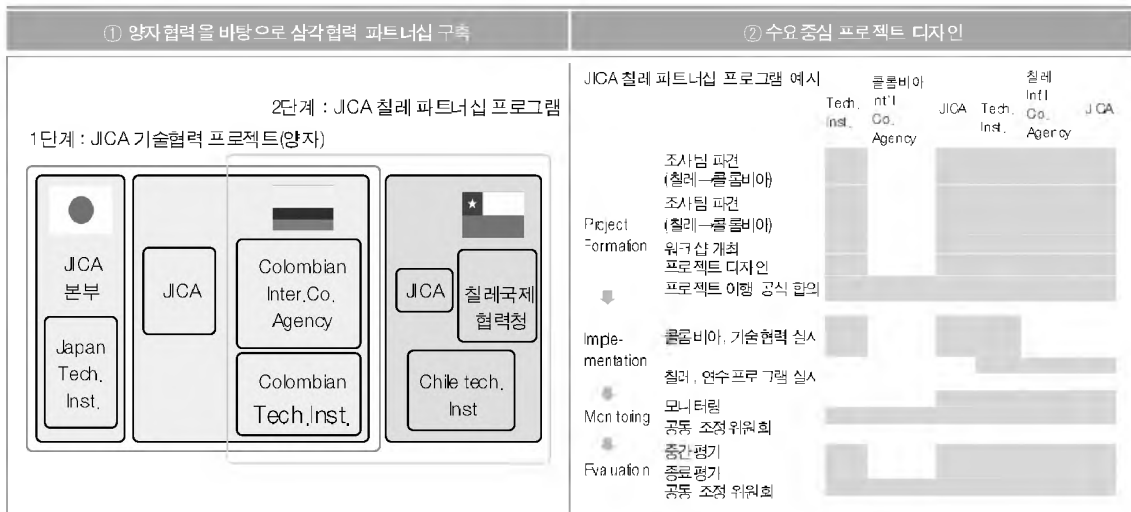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삼각협력을 통한 남남협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성공적 남남/삼각협력을 위한 공여국의 접근 방법으로 ① 기존 양자협력을 바탕으로 한 삼각협력 파트너십 확대와 ② 수요중심 프로젝트 디자인, ③ 주축국과 수혜국간 조정 매커니즘 개발, ④ 주축국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며,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양자협력 바탕으로 삼각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수요중심 사업 디자인

- 일본은 주로 양자협력을 통해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분야에서 협력국 범위를 확대하여 삼각협력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주축국에 대한 이해와 지원 분야에 대한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성공적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② 수요중심 접근에 입각한 프로젝트 공동 디자인

- 일본은 협력국간 공동수요조사, 공동사업디자인 및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수요중심 사업디자인과 협력국 개발사업 관리 역량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었다.



③ 주축국 비교우위와 수혜국 수요의 조화,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매커니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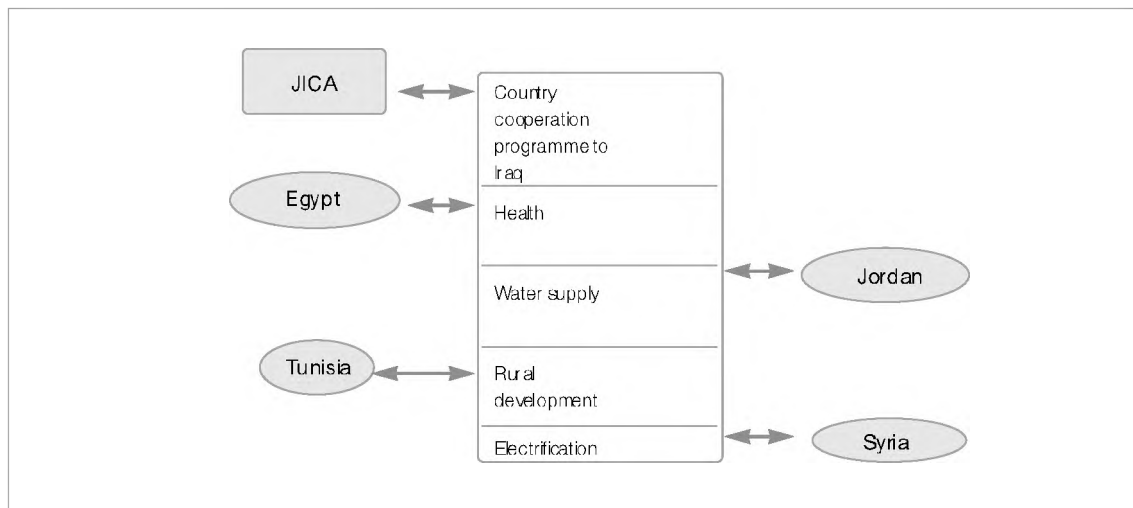
일본은 JARCOM⁴⁾ 등과 같이 주축국과 수혜국간의 협력분야 조정(knowledge matching)을 위한 매커니

4) JARCOM(JICA-ASEAN Regional Cooperation Meeting)은 JICA 기술협력 프레임워크 하에 ASEAN 국가간 남남협력 증진을 위한 수요중심 프로젝트 형식 지원 매커니즘임

즘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 형성 과정을 지원함은 물론 업무 중복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비용, 시간)을 제고하고 있었다.

- 1단계 : 수원국 수요와 주축국 우선협력분야 매칭 (양국 정부 - JICA 양국 사무소)
- 2단계 : 구체 수요 바탕으로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
- 3단계 : 수원국 수요와 주축국 자원 매칭을 위한 협상 (JARCOM 지원하)
- 4단계 : 프로젝트 형성 활동 (JARCOM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
- 5단계 : 공식요청서 준비·제출, 이행협약 (Implementation Agreement) 체결
- 6단계 : 제3국 훈련 프로그램 이행 및 관리
- 7단계 : 연간 활동 모니터링 및 리뷰를 통한 교훈 도출

- 또한 기존 협력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JICA 국별지원프로그램에 남남협력 사업을 통합하는 방식의 사업도 추진이다. 즉, JICA의 이라크 국별지원프로그램 일환으로 보건, 식수제공, 지역개발, 전화(電化) 분야 사업을 추진시 각 분야에 비교우위를 가진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시리아와 함께 삼각협력 형태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라크-기타국가간 남남협력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있었다.



④ 남남협력 추진국의 역량개발 도모

- 나아가 일본은 삼각협력 추진에 있어 주축국의 역량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책개발, 예산배분, 사업이행기관과의 조정, 프로젝트 계획, 모니터링 및 평가등의 분야에서 해당국가 정부들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었다.

3) 체계적 삼각협력 추진은 윈윈윈(win-win-win) 전략

즉 일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각협력이 기존 공여국-주축국-수원국 모두의 이익을 창출하는 윈윈윈(win-win-win) 전략이 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성공적 삼각협력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남협력 주축국	남남협력 수혜국	기존 공여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역량의 재발견 - 수요중심 맞춤형(tailor-made) 프로그램 제공의 효율성 제고 - 수원국과의 협력기회, 협력분야 및 사업 조정 기회 강화 - 비용분담(cost sharing)을 통한 재정 부담 감소 - 자국 정부로부터의 관심 유발 및 더 나은 지원 기대 가능 - 주인의식 강화 - 기술, 자원 등에 있어 남남협력 추진의 도전 과제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도가 높은 기술 및 지식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주축국 등 타국가와의 협력 및 조정기회 확대 - 자국 정부로부터의 관심 유발 및 더 나은 지원 기대 가능 - 주인의식 강화 -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영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주인의식 강화 - Southern-grown 성공 사례 제시 및 적용 가능한 기술 활용을 통한 협력 효율성 제고 - 개도국의 가용개발자원 활용 극대화 - 개도국 개발 역량 배양 - 주로 주축국이 되는 중소득국가와의 새로운 관계 형성

나)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독일(BMZ)의 관점

1990년대부터 삼각협력을 추진해온 독일(BMZ)은 공여국이 남남/삼각협력을 위한 정책 형성 및 효과적 이행역량을 지원해야함을 강조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절차 따라 삼각협력을 추진중이다.

1) 독일의 삼각협력 주요 협력국

독일은 지역별 거점국가로 주요 주축국(Pivotal country)을 선정, 브라질, 칠레, 멕시코(라틴아메리카), 중국, 태국(아시아), 이집트, 남아공(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전략적 삼각협력을 추진

① 수원국 선정 기준

- 수원국의 수요/주인의식에 기반하여 선정
- 협력대상국 중 선정, 해당국에 대한 이해 및 사업추진 효율성 제고
- 삼각협력 추진시 수원국의 적절한 인적, 재정적 기여가 바람직
- 주축국 비교우위 분야와 수혜국 수요와의 부합도 정도

- 수혜국 개발환경, 사회문화 등과의 유사성 정도

② 주축국(Pivotal country) 선정 기준

- 주축국은 반드시 남남협력 또는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여야함
- 수원국 공동 지원분야는 주축국과 독일 모두의 양자협력 지원 분야여야함
- 주축국의 자원 부담 능력 : 삼각협력 추진시 주축국 자원 공동 부담 필요
- 수혜국 개발환경, 사회문화 등과의 유사성 정도

2) 삼각협력 추진 절차

- 수원국 선정 후 초기단계에서 파트너국가와의 공동 워크숍 실시
 - 삼각협력과 국가우선분야와의 조화 확인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최소화를 위해 분명한 과업 기준 마련
 - 파트너국가 및 모든 활동기관들 각각의 역할 명백히 규정
 - 삼각협력 협약 체결 후 사업추진 절차,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 등 제반 프로세스 마련
 - MOU 등을 통해 업무 및 책임내역에 대한 문서화
- 상호간 경험 및 교훈 공유
 - 삼각협력 포럼 개최, 이행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 분석 실시, 문서화 및 협의를 통한 우수 사례 공람

다) OECD : 원조효과성과 남남/삼각협력

OECD/DAC 차원의 노력도 관찰 되었는데, OECD Aid Effectiveness Division의 Ms. Brenda Killen 국장은 파리선언을 위한 구체 이행계획인 아크라행동계획(AAA : Accra Agenda for Action) 역시 주인의식(ownership) 강화, 포괄적파트너십(inclusive partnership) 구축 등에 있어 남남/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동 행동계획의 주요 관련 부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 주인의식 관련 조항

- Demand driven approach
- The contribution of SSC for demand-driven capacity development(§ 4)

▶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 관련 조항

- Reducing aid fragmentation(§ 7)
- Enlarging the tent welcoming all development partners(§ 19)

-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nd particularities of SSC...and what we can learn from their experiences (§ 19b)
- Encourage further development of triangular cooperation (§ 19b)
- SSC is a valuable complement to North-South Cooperation (§ 19.e)
- Recognize that SSC observes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equality, national sovereignty, cultural diversity, identity and local content (§ 19.e)
- Recognition of aid as a part of the broader development effectiveness agenda - All development actors to use the Paris Declaration principle... (§ 31)

또한, 원조효율성 제고에 있어 남남/삼각협력이 지닌 장점과 도전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파트너국들이 파리선언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개발주체들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남남/삼각협력의 장점 및 기회	남남/삼각협력의 도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남북협력에 대한 보완효과 지대 • 생산부문과 인프라부문의 지원 격차 해소 • 수원국 수요에 보다 부응하는 기술 제공 • 수원국이 보다 신속하게 흡수 가능한 기술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축성원조, 투명성, 예측가능성 • 원조분절(aid fragmentation)로 인한 비효율성 및 파트너국가의 주인의식 저해 가능성 잠재

즉, OECD/DAC 차원에서도 다양화된 개발주체와의 효율적 파트너십 구축과 주인의식 제고를 위한 남남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협의체계 구축 등을 위해 DAC 원조효과성작업반(WP-EFF : Working Party on Aid Effectiveness)에 남남협력 기술제공국(providers of SSC)이 공식멤버로 포함될 계획인 만큼, 남남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III. 성공적 남남/삼각협력을 위한 시사점

동 워크숍을 통해 발표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남남/삼각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성공적 삼각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협력국과 분야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① 우리와의 협력관계, 기술공유 경험, 지역내에서의 영향력 및 개발역량 등을 고려하여 주축국 및 수원국 선정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②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와 우리-주축국간 양자협력 분야를 고려하되, 수원국 수요중심 접근을 통해 주인의식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분야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③ 구체 사업내용 형성에 있어서도 개도국간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 및 조정 메커니즘을 개발하할 필요가 있으며, ④ 관계기

관 간 세부 업무 분장 및 책임을 문서화하여 불필요한 업무 및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남협력 추진 당사자들은 대부분 신흥공여국이거나 상대적 기술 우위를 가진 개도국들이 대부분이어서, 조정 능력이나 개발 프로세스를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개발사업 관리 역량 및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여국은 삼각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춘 사업 관리가 될 수 있도록 ① 성과관리교육 제공 등 주축국의 개발정책형성과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② 남남협력 추진국간의 정책 및 협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남남협력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UNDP를 중심으로 남남/삼각협력 논의는 보다 활발히 확대될 것이며, 원조효과성 작업반 역시 남남협력 주축국 등 다양한 개발주체들의 포괄적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협력 효율성 증대를 논의할 계획인 만큼, 남남/삼각협력은 개발협력의 중요한 톨로서 점차 그 중요성이 강조되리라 관찰된다.

동 회의 참석을 통해 非DAC 회원국인 한국은 아직까지 'doer of SSC', 'provider of SSC' 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아직까지는 non-DAC provider(financial/technical supporter)이므로 삼각협력 내에서 남남협력 역할 담당 주체라 인식되는 전통 공여국(the North)에도 포함되기 어려운 모호한 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남/삼각협력의 의의가 기술수준과 개발경험이 각기 다른 다양한 개발주체간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타 개도국 대비 상당한 기술 우위를 지닌 한국은 삼각협력 형태로 남남협력을 지원한다고 이해 가능할 것이다.

그런 한편, 삼각협력에 있어 공여국의 주요 역할은 개도국간 남남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남남/삼각협력에 대한 우리의 지원 전략과 개발경험 전수를 위한 전문성과 관련 정책, 노하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공여국으로서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수원국에서 성공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OECD/DAC 가입을 앞둔 한국은 현재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국가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UNDP 남남협력특별반(SU/SSC) Director인 Mr. Yiping Zhou 역시 수원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기술경제대국으로 성공적으로 거듭난 한국의 경제 발전 성공요소가 공유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등 한국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었다.

이렇듯 남남/삼각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국제개발협력 동향, DAC 가입 준비를 앞두고 기존 the North 공여국과 함께 개발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원조 내실화 필요성,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역시 남남/삼각협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개발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다양한 모든 개발주체간의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원조의 고립성을 극복하는 길임과 동시에, 다변화하는 ODA 흐름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더욱 선진화된 공여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길이기도 하다.



『국제개발협력』 논문 기고 안내

한국국제협력단은 계간지 『국제개발협력』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이슈 중 아래에 정한 내용이어야 하나, 이외에도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주제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 종사자 및 국제협력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투고를 기대합니다.

1. 『국제개발협력』 발간목적

『국제개발협력』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이슈 뿐만 아니라 제3세계 개발과 관련한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OECD/DAC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세계 개발 관련 이슈들을 알리고 이에 대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

2. 『국제개발협력』 원고 게재 절차



1)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단, 우편접수 시에는 논문의 원본 파일이 저장된 플로피 디스켓 혹은 CD 1매를 동봉한다.

주소 :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내왕판교로 418 한국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

e-mail : callforpapers@koica.go.kr

Tel : (+82)31-740-0301 Fax: (+82)31-740-0681

- 원고 접수는 각 호의 원고 마감일에 따른다.

*상기 이슈는 발간 시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호	기 고문 주제	원고 마감일
2009년 제2호	국가지원전략(CAS)의 활용	2009. 5. 20

- 기고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의 발간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국제협력단이 정하는 “『국제개발협력』 원고집필요령”(KOICA 홈페이지에 게시)에 따라야 한다.
- 기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없는 창작논문이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

- 심사절차는 『국제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국제협력단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논문의 심사는 국제협력단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논문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3) 게재

-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한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국제협력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국제협력단 정책연구실은 『국제개발협력』 편집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논문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은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국 제 개 발 협 력 2009년 제1호

발	행	2009년 3월
발	행	인 박 대 원
발	행	처 한국국제협력단
편	집	인 정책연구실, 홍보위원회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418 ☎461-833
전	화	(031)740-0301
팩	스	(031)740-0681
홈	페	이 지 www.koica.go.kr
인	쇄	산하기록인쇄 TEL. (02)2272-5002(代)

[무단복제를 금함]